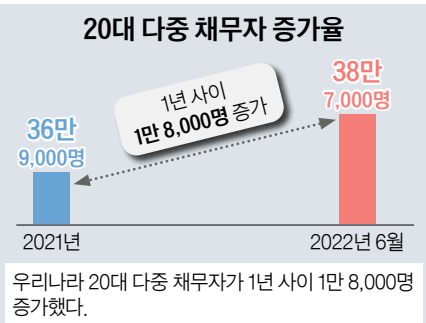


[금융]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 금융교육이 필요해

금융사회에서 허우적대는 청년들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저금리정책이 이어져자 많은 2030 청년들은 주식과 코인 열풍에 빠져들었다. 금융위원회가 9월 26일에 실시한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한 2030 세대의 비율은 전체 투자자의 약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투자로 많은 이익을 거둘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올 상반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 에게 거대한 빛과 속죄로 돌아왔다.

9월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0대 다중채무자(여러 곳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 수는 38만 7000명으로 올 해에만 1만 8000명이 늘었다. 3~50대의 다중채무자의 수 1만 9000명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의 최근 3년간 「여신사 2030 가계 대출 신규 취급 추이조사」 결과, 작년 20대가 카드회사나 캐피탈처를 금융만을 갖춘 여신사에서 빌린 돈은 1조 2천억 원가량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대출액 증가율은 98%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20대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소득이 낮은 등 금융 활동이 많지 않기에 비교적 대출이 쉬운 여신사로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다중채무자를 비롯해 가계 대출 비율이 급증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 20대 다중 채무자가 1년 사이 1만 8,000명 증가했다.

정치를 모르니, 관심이 줄었다

대학가의 정치 활동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올해 서울권 4년제 대학교 중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37곳 중 13곳에 달한다. 대부분 입후보자가 없거나 개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학이 공식으로 남았다. 이처럼 학생 자생 단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이유는 충분한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체대 총서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개인화된 사회 속 학생들이 집단 연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 및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총학 실종의 원인을 대학 내 정치 교육 부족으로 꼽았다. 김윤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 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 교육은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정치 지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서연희 자체 설문조사 결과, 양당이나, 단핵, 비례대표제 등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는 응답자는 많았지만, 캐스팅 보트와 같이 심화된 정치 용어를 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이를 학교 교육을 통해 인지 습득하지 않았다. 교육 기관에서 충분한 정치 교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학우는 34명에 불과했다.

청년층 “실질적인 금융이해력 부족해” 어려움 호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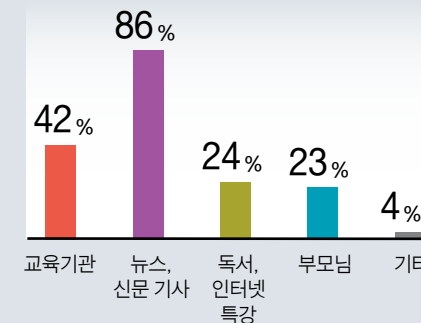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뜻한다. 금융이해력이 높을수록 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020년에 실시한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은 64.7점으로 전체 평균(66.8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금융이해력의 부문 중 금융 태도(소비와 저축, 돈의 존재까지 등에 대한 선호도) 부문에선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년층은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축보다 소비 선호’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34.2%로 반대 응답률(26%)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향이 금융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생 10명 중 8명도 OECD 금융 행위 최소score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 지식수준은 약 4% 올랐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서연희 자체 설문조사 결과 ‘금융(경제) 지식 부족으로 인해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소 개해달라는 질문에 전체 답변자의 과반수가 금융 지식 부족으로 기사나 서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과 투자나 주식 등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차례를 이었다. 손정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손 교수)는 “사회생활 80% 이상이 경제생활이고 절반 이상이 금융과 관련돼 있지만, 금융교육이 소외돼 온 것은 문제”라며 금융이해력 부족 문제는 적절한 지출이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부터 신용을 쌓지 못하는 문제가 지 광범위하게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치 교육의 필요성과 빈비례하는 현실

Q. 귀하는 △야당 △여당 △탄핵 △비례대표제 △캐스팅보트 등의 단어에 ‘안다’를 선택하셨다면, 어떤 경로로 지식을 습득하셨나요? (중복응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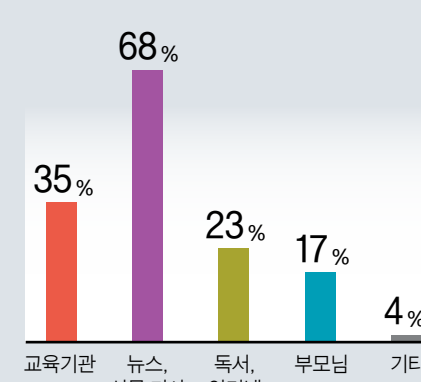


그럼 정치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고등학생들은 필수 과목 ‘통합사회’와 선택 과목 ‘정치와 법’을 통해 정치 교육받고 있다. 그러나 ‘통합사회’와 ‘정치와 법’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은 실생활과 큰 관련이 없는 원론적 내용이다. 김일고 최유리 사회 교사들은 “정치와 법 수능 문제는 변별력을 이유로 너무 어렵게 출제해 학교 교사들 역시 이를 위한 문제 풀이 위주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치 교육의 한계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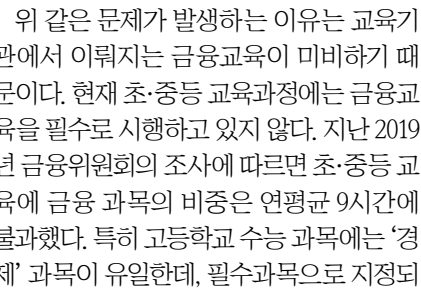
여기에 고교학점제로 ‘정치와 법’이 선택 과목이 되며 학생들이 정치 교육을 접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2023학년도 수능 선택 과목 비율에서 ‘정치와 법’은 6.23%에

현행 금융 교육의 실태는?

Q. 귀하는 어떤 경로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계신가요? (중복응답가능)



Q. ‘교육기관’을 선택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충분한 금융 교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금융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에는 금융교육을 필수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에 금융 과목의 비중은 연평균 9시간에 불과했다. 특히 고등학교 수는 과목에는 ‘경제’ 과목이 유일한데,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수강인원이 적어 개설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비교적 선택 인원이 적은 경제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지면서 금융교육의 비중이 더욱 줄어든 전망이다. 이소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뒷전이 된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에서 경제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금융교육은 부족하다. 대학에서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금융 문맹, 눈 뜨고 코베이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이나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수강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단발성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 시작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경제 자료와 사례를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금융 지식을 지도해 금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교육보다 입시 교육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민미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프로젝트 교육기획팀 과장은 “관심있는 선생님들이 일 부 분야나 주제 개원을 대상으로만 강의를 신청하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왔다. 고등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경제교육을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2021년에 진행된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88%가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21년, 조선일보에서 고등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학생 중 97%가 ‘금융교육이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많았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겪은 사례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교육을 촉구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융,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등 사회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연합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시 외 교육 부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이나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수강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단발성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 시작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경제 자료와 사례를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금융 지식을 지도해 금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많았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겪은 사례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교육을 촉구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융,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등 사회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연합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시 외 교육 부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이나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수강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단발성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 시작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경제 자료와 사례를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금융 지식을 지도해 금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중앙일보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교육을 촉구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융,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등 사회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연합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시 외 교육 부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이나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수강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단발성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 시작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경제 자료와 사례를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금융 지식을 지도해 금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많았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겪은 사례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성인지]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성인지 교육

성교육의 실질적 공백

청년들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에 비상이 커졌다. 지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예방 교육 수준과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건 성범죄’란 항목에 13.2%에 달하는 20대 남성이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전 연령대 여성(3.9%)과 남성(5.9%)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대 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전국 대학에선 1천 2백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학생 간 성범죄가 714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의 문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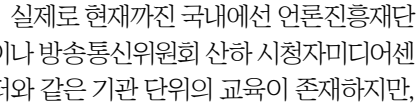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교육을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책, 법령, 관습,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성인지 교육은 ‘성평등한 시각에서 일 치에 참여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치 참여도 마련을 통해 효능감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정치 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교육을 촉구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융,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등 사회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연합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시 외 교육 부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이나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수강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단발성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 시작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경제 자료와 사례를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금융 지식을 지도해 금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많았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겪은 사례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성인지]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성인지 교육

성교육의 실질적 공백

청년들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에 비상이 커졌다. 지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예방 교육 수준과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건 성범죄’란 항목에 13.2%에 달하는 20대 남성이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전 연령대 여성(3.9%)과 남성(5.9%)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대 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전국 대학에선 1천 2백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학생 간 성범죄가 714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의 문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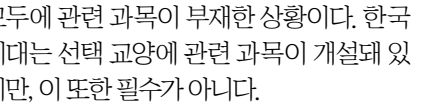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교육을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책, 법령, 관습,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성인지 교육은 ‘성평등한 시각에서 일 치에 참여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치 참여도 마련을 통해 효능감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정치 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교육을 촉구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융,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등 사회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연합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시 외 교육 부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이나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수강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단발성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 시작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경제 자료와 사례를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금융 지식을 지도해 금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많았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겪은 사례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성인지]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성인지 교육

성교육의 실질적 공백

청년들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에 비상이 커졌다. 지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예방 교육 수준과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건 성범죄’란 항목에 13.2%에 달하는 20대 남성이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전 연령대 여성(3.9%)과 남성(5.9%)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대 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전국 대학에선 1천 2백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학생 간 성범죄가 714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의 문이 제기된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교육을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책, 법령, 관습,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성인지 교육은 ‘성평등한 시각에서 일 치에 참여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치 참여도 마련을 통해 효능감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정치 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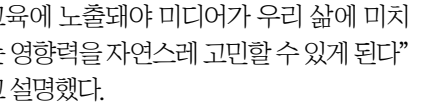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교육을 촉구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융,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등 사회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연합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시 외 교육 부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이나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수강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단발성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 시작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경제 자료와 사례를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금융 지식을 지도해 금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많았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겪은 사례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성인지]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성인지 교육

성교육의 실질적 공백

청년들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에 비상이 커졌다. 지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예방 교육 수준과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건 성범죄’란 항목에 13.2%에 달하는 20대 남성이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전 연령대 여성(3.9%)과 남성(5.9%)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대 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전국 대학에선 1천 2백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학생 간 성범죄가 714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의 문이 제기된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교육을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책, 법령, 관습,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성인지 교육은 ‘성평등한 시각에서 일 치에 참여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치 참여도 마련을 통해 효능감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정치 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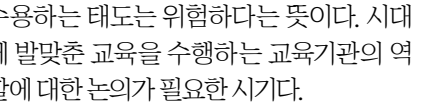
출처 : 중앙일보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교육을 촉구하다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융,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등 사회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에서 연합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시 외 교육 부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이나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수강할 수 있기에 모든 학생이 교육을 제공받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한, 단발성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금융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거래 시작 이전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이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현실경제 자료와 사례를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에서 응용 가능한 금융 지식을 지도해 금융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많았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기에 연루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겪은 사례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성인지] 사회 구성원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성인지 교육

성교육의 실질적 공백

청년들의 성인지 감수성 실태에 비상이 커졌다. 지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예방 교육 수준과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건 성범죄’란 항목에 13.2%에 달하는 20대 남성이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전 연령대 여성(3.9%)과 남성(5.9%)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대 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증가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전국 대학에선 1천 2백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학생 간 성범죄가 714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의 문이 제기된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교육을 ‘모든 사회생활에서 정책, 법령, 관습,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성인지 교육은 ‘성평등한 시각에서 일 치에 참여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 교육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치 참여도 마련을 통해 효능감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 교육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정치 지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 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